

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인지 거의 대부분 양계인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양계업 발전

이전에 양계업 지속을 위해 반듯이 전제되는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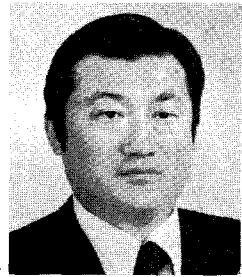
양계업 발전의 길은 특별한 기적은 없고 오직 생산능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며, 창조적인 연구와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산물의 올바른 인식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따라야 한다.

산업의 발전은 협력과 단결로 실천하는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신년에 들어보는 양계산업 발전론

영세성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을



정 태 원
홍성사료공업(주)대표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로서 인간에게는 온갖 가능성이 열리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인간의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행위를 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하나의 조직사회 또는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려운 운명적 여건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은 반드시 풍요롭고 밝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섬유 등 일부 분야만 타결되고 최대 쟁점이었던 농산물 분야에서 타결되지 못한채 협상시한이 1~2년 연장 등이 제안됨에 따라 UR 협상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에 농산물 분야가 타결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다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간은 UR 협상이 언젠가 타결될 때에 대비한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견준다면 거의 의미

가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금까지는 부분적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모색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맞이하는 1990년대는 자유화라고 하는 대변동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난관을 유연히 대응해 갈 것인가, 즉 살아 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하튼간에 향후 UR의 타결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축산현실, 특히 양계산업 부문에서 비취볼 때 가장 먼저 구조개선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제적

인 환경변화 시대에 양계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의 절감과 아울러 양계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육규모의 확대와 원가 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의 사육규모가 영세해서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양축농가는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사육규모의 확대로 최대의 생산성과 최저의 생산비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지원이 요구되며 각 양축농가의 경영진단 분석이 선행되어야겠다.

둘째, 양계산물이 계획생산이 이루어져 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통계 및 축산관측을 정확히 함으로서 계획성 있는 양계산물의 수급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셋째,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한 종계의 품종개량과 선발 및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효과적인 관심과 정책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

넷째, 양계산물을 이용한 가공

제품의 다양화 및 질적 고급화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가공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아울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다섯째,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료원료의 높은 관세율, 국산 옥수수외 강제배정 특히 수입 대두박의 관세율 인상계획 등은 양계업에서 70~75% 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제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합사료 제조회사 역시 원가절감을 위한 시설투자 및 사료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양축가 사양지도 업무의 강화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써야겠다.

이와같이 모든 축산 관계자들이 뭉쳐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반드시 시장개방을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전환되리라 본다.

「계의 특수관리」

—오세정 편저

우보 오세정 교수의 회갑기념 논문집으로 출간된 「계의 특수관리」를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닭의 환경관리, 점등관리, 강제환우를 비롯하여 부리자르기 및 계분처리 등의 특수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기술서적이다.

- 선진문화사 펴냄
- 구독문의 : 본회 편집부 (588-7651)
- 구입가격 : 권당 8,000원 (발송료 별도)